



출처: pcltv.org

담임목사 주일 설교	2면
교구별 하기 수련회	3,4면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6면

|로 템 나 무|

“숨겨진 마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름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도다.(요삼1:9-10)

이번 수련회는 그동안 소원했던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멀쩡히 보고 인사만 했던 사람들, 이런 저런 이유로 헤어졌던 사람들과 함께한 반가운 시간이었다. 그러나 자신이 으름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였다. 과연 그 사람만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는가? 시간이 흐를수록 내 안에도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조금이라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였다.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을 비난하였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쫓아내어버리기도 하였다. 결국 나는 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인 것이다. 그 사람은 눈에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 뿐이다. 어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솔직한지도 모르겠다. 나처럼 은밀하게 나의 마음을 포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주님!
저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을 들추어내는 것에 익숙합니다.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제 안에 숨겨진 은밀한 죄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엄혜숙 기자

한국인 피랍사건 석방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라디오 진행자는 방송에서 한국인 피랍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피랍된 봉사단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그들이 인천공항에 돌아올 때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들이 영웅처럼 목에 꽃을 걸고 들어오는 것은 절대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배형규목사가 죽음을 당하고 아직 남은 22명의 생사의 문제도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한 말을 논하는 것 자체 도리에 맞지 않다. 그들의 목에 꽃이 걸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더 큰 욕을 먹게 되더라도 남은 22명에 온전히 살아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랄뿐이다.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 온 힘을 다해 그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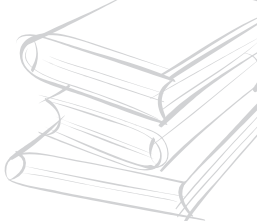
안전과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지금은 이것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기독교와 기독교 선교에 대한 강한 비판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 이 또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들이다. 그 속에는 기독교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만들어진 일방적인 비판과 우리의 모습을 정직히 들여다 보게 하는 정직한 충고가 뒤섞여 있다.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야 한다. 전자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 항변을 자제하자. 후자에 대한 올바른 성찰이 오히려 우리의 진심을 세상에게 바로 전하는 올바른 길이 될 것이다.

김현령 목사

행복한 교회생활 캠페인 ⑥

“도서실 대출도서, 518권을 돌려주세요!”



교회도서실이 도서 대출을 시작한 2004년도부터 2007년도 6월30일까지 연체된 도서가 무려 518권에 이른다. 이로 인해 도서대장관리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도서실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 읽을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서실팀은 도서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속한 반납을 거듭 부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8월 한 달간 도서반납함을 1층 로비에 비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도서실이 구비하고 있는 한 권, 한 권의 책은 성도들의 기증과 헌금으로 구입

된 소중한 재산이다. 그 만큼 도서실을 이용하는 모든 성도들은 책이 훼손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다뤄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또한 읽고 싶은 책이나 신간이 있으면 도서실에 비치된 추천도서목록에 기록하면 된다. 신청 도서는 도서실운영팀의 논의를 거쳐 구입하고 있다.

교회도서실은 교회의 아름다운 문화공간이며 성도들의 또 다른 쉼터이다. 이를 위한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이 절실하다.

기사제공:최정숙 집사(5-4)

기사작성:편집부



“오늘도 농부는 겨자씨를 심습니다!”

전도서 10:6~8
마태복음 13:31~32

그러하기에 겨자씨는 무엇보다도 주위의 가라지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자신을 호시 탐탐 노리는 새들도, 이 모든 난항으로부터 스스로를 포기하려는 마음도 모두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은 겨자씨 비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비록 두 절 밖에 되지 않지만, 그 내용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장 큰 주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모든 교회가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교회들을 번식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비전과 소망을 갖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위해 온 힘을 다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러나 먼저 이러한 우리들의 소망이 오늘 이 말씀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바로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 궁창, 땅, 별, 새, 동물, 사람 그리고 안식,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 자신과 이웃,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사랑을 담고 있는 존재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이웃은 내가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함께 살아야 할 대상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말하고, 씨는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을 말합니다. 비유는 먼저 말하기를,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농부는 오늘도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고백할 첫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리고 농부되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겨자씨를 심습니다.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은 세속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 종교 다원주의, 인본주의, 이 모두가 이 땅을 덮고 있는 가라지들입니다. 도대체가 아름다운 모습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와 교회는 어느 때부터인가 세상은 버려진 땅, 빼앗긴 땅,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는 땅이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남아있는 자투리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을 확장하고, 그 안에서 왕국을 세우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때고 이 땅을 남에게 넘겨준 적이 없으십니다. 어느 한 시간도 이 땅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아니,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을 개간하시고 겨자씨를 심고 계십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것이 성도와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포기할 수 없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궁극적 소망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땅입니다. 온갖 가라지로 가득한 이 땅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농부는 겨자씨를 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온 땅에 가라지들이 난리인데, 거기에 겨자씨를 심어서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먼저 잡초들을 뽑으셔야지요?’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가라지를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들이리라.”

악이 있는 것을 몰라서 선에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이 관영할수록 더욱 선에 힘써야 합니다. 세상에 가라지가 넘칠수록 더욱 겨자씨를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수고는 이 땅에 가라지를 뽑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겨자씨를 심는 일입니다. 예전에 만났던 두레 마을의 한 농부는 벼가 자랄 때 가라지를 뽑다보면 흙이 무너져 벼도 함께 어려움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자라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더욱 세상으로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더욱 불길을 지펴야 합니다. 농부는 이미 하나의 겨자씨가 자라기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난관들을 겪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겨자씨는 무엇보다도 주위의 가라지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자신을 호시 탐탐 노리는 새들도, 이 모든 난항으로부터 스스로를 포기하려는 마음도 모두 이겨내야 합니다. 겨자씨가 힘을 내지 않으면 농부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문제-Easy Believism

여기서 우리는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성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한 성도, 약한 교회입니다. 편만한 성도, 편만한 교회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에 나약한 성도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기 때문입니다. 매일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대신 감정에 치우치고 재미에 치우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게리 콜린스(Gary Collins)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은 편만한 신앙주의(Easy Believism)라고 한 마디로 지적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이 마음입니까? 생각하는 능력, 말씀을 탐구하는 능력, 이를 말합니다. 이것이 변화되어야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사명을 위한 훈련입니다. 훈련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고귀한 은혜라 할지라도 훈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은혜는 값싸고 천박한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귀할수록 더욱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결코 은혜 없이 그 능력이 지속되지 못합니다.

농부의 소망-세상을 품는 큰 나무

그러나 농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작고 연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자라면 나무가 되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이것이 농부의 소망입니다. 아무리 가라지가 많아도 농부가 겨자씨를 심는 것은, 겨자씨가 나무가 될 것이라는 소망 때문입니다. 비록 많은 겨자씨들이 중간에 죽어버리기도 하지만, 농부가 겨자씨를 심는 것은 나무가 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큰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새들이 찾아오고, 세상이라는 새들이 집을 짓고, 그리고 세상이라는 새가 휴식을 얻을 수 있는 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농부가 가라지를 대하는 모습도 눈여겨보셨습니까?

“겨자씨를 심되....” 이 말 속에 농부의 소망과 함께 정성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한 개의 겨자씨를 심습니다. 가장 작은 겨자씨를 하나 하나를 심습니다. 그저 뿌리지 않습니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뿌리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뿌리지 않습니다. 하나 하나 정성을 다해 옥토에 심습니다. 그래야만이 햇빛을 이길 수 있습니다. 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훈련하는 교회, 훈련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결코 이곳에 아무렇게나 뿌리지 않으셨습니다. 수 천명이 아니라 수 만명이 모였을지라도, 여러분을 무책임하게 뿌리지 않았습니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나물보다 크고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는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훈련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준비 되는 대로, 여러분을 충성된 제자로 만드는 훈련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금 헌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겨자 나무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1+8교구

회복, 처음처럼 마지막까지

7/20-21 화성 하내수련원

100여명의 인원이 참여한 수련회에서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평소 자주 만날 수 없었던 교우들과 공동체로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첫날 저녁 7시에 교회를 출발한 버스는 9시를 살짝 지나 도착하였고 곧바로 예배가 시작되었다.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든 생명을 살리며 회복케 한다고 전한 정영환 목사는 '나는 어떤 부분이 회복되어야 하는가?'를 돌아보자고 모두에게 질문하며 기도하기를 요청했다. 참석자 모두는 각자가 속해 있는 모든 관계 안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 놓고 회개하며 기도하였고 자정이 넘어서야 끝이 났다.



21일 새벽 닭 우는 소리에 잠을 깬 교우들은 수련원 주변을 산책하며 축축한 아침 공기 속 각양의 모습으로 피어 있는 야생화들에 감추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 듯 저마다 미소 띤 얼굴이었다. 홍의윤집사의 활기찬 공동체 놀이는 90분의 시간이 짧게 여겨질 정도로 즐거운 시간이었으며 사임하는 정영환 목사의 송별 순서를 가졌다. 점심 식사 후 제부도 갯벌을 향해 전진



한 믿음의 용사들은 목표한 바지락 조개는 커녕 패잔병처럼 빈 주머니만 들고 퇴장했는데 그 중 아쉬우나마 손톱만한 게, 다슬기 등을 주운 이도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다. 소설 제목과 같은 [물레방아]에서 누가 잡았는지 모를 바지락이 가득 들은 파전과 칼국수로 저녁식사를 하고 교회로 출발하여 저녁 7시10분에 도착함으로 모든 수련회 일정을 마쳤다. 신영숙권사(1-2)



2교구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7/16-17 청평 채플녹수교회



단아한 일층 통나무가 운치있게 어우러진 채플 녹수교회에 도착한 우리는 '우리모일때 주성령 임하리'라는 찬양으로 두손들고 경배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길 기원하였다.

첫째 날 저녁에 이창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라는 주제의 말씀 중에 "주일날 교회 다녀

왔다고, 또한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것일까"라는 질문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셨다. 신앙적인 깨달음으로 구역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세상에 나가 믿는자들이 본이 되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 늦은 저녁이 되어서 권사님의 손길로 준비된 뜨거운 감자와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서 교구 식구들과의 친교의 밤은 더욱 깊어졌다.

둘째 날 '공동체 하나되어'라는 말씀을



나는 후 오후에 진행된 레크레이션은 웃음이 끊이지 않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떡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임을 감사하며 기쁨 한껏에서 번져오는 따듯함을 느꼈다. 황 경 집사 (2-11)



3교구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

7/20-21 경기도 광주 사랑의집

개회예배 후 최현배 집사님의 치밀하게 준비된 게임인도로 서로를 알아가기에 충분했다.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밤은 깊어갔다. 찬양하며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희성 목사님의 설교를 경청했다. 절대적 가치가 되어있는 경험들이 우리의 기쁨을 찾아가고 스스로 갇힌 생각에 사로잡히게 한다. 기쁨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기준을 바꿔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준은 성령께서 우리의 시각을 수술해 주시지

않고는 바꾸기 어려운데, 바로 십자가를 통해 보는 시각을 회복하는 것이라 설교했다. 예배 중에 성도들은 예전에는 필요했으나 이제는 옮겨야 할 돌들을 생각하며 서로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했다. 구역별로 모여 공동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공식적인 하루의 행사를 마무리 했다. 밤늦도록 영화 (박물관은 살아있다)를 본 형제자매, 뜨거운 기도로



맑아진 공기과 풀향기 속에서 산책하며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고, 9시30분부터 시작된 성경파노라마를 통해 다시 한 번 말씀으로 향하는 뜨거운 불을 지피는 시간을 가졌다. 점심을 먹고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된 조별 발표 시간동안에는 1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새로 접한 주제를 조별로 연기에 내는 형제자매의 모습을 통해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작품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게 되었고, 쉴 새 없이 웃으며 즐거운 시간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다. 무슨 새



기도와 말씀의 잔치! 2007 교구별 하기 수련회

7월 16일(월)부터 21일(토)까지 각 교구별로 교구수련회가 있었다. 이번 특집에서는, 수련회에 참여하였던 각 교구 성도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로운 것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시작된 수련회지만 짧은 시간 속에서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잠시 세상을 잊

고 천국을 경험한 행복한 시간이었다. 기도와 섬김으로 준비하시고 애써주신 모든 지체들에게 감사드리며 구역과 교회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한다.
권주리 집사(3-9)

4교구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7/16-17 가평 루디아의 집

아침 10시 비는 내리지만 앞에는 맑은 시냇물이 시원하게 흐르고, 운무가 드리운 산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풍광에 교우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에 감명을 받아서일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라는 주제로 기쁜 소리 찬양선교단과 함께한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가 흘러 넘치게 했고 신화식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도로 나아가게 했다. 모두 온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를 얹매고 괴롭히던 온갖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충분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었다. 둘째 날 아침 식

사 후에는 산책을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다. 비온 후 맑은 공기를 마시며 교우들과 함께 한 산책은 상쾌했다. 교우 두 분의 솔직한 고백과 간증은 잔잔한 감동과 함께 깊은 공감을 주었고 조별로 나눈 이야기도 유익했다.

이틀에 걸쳐 넷물에 들어가 놀았던 아이들은 또 얼마나 즐거웠을까? 아이들의 놀이를 지도해 주신 선생님의 수고도 감사했다. 식사 시간 역시 은혜와 감동이 넘쳐났다. 정성껏 마련한 밥상과 풍성한 간식으로 영혼 못지않게 육신도 좋은 공기 속에 많은 즐거움을 누렸다.



참석한 지체들 모두 수련활동을 위해서 이 모조모로 수고해 주신 많은 손길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년의 교구수련활동은 어떻게 예비해 주실까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김정순 집사 (4-18)



5교구

나의 찬송! 나의 하나님!

7/20-21 용인 태화국제학교

5교구 수련회는 덥지 않은 날씨 속에서 진행되었다.

'옛날을 기억하라' 첫번째 코스인 기독교순교자기념관에 도착하자 주기철목사님이 쓰신 감동적인 시귀가 새겨진 커다란 돌덩이와 대동강변에서 젊디젊은 나이로 참수 당하신 토마스 목사님의 순교장면이 그려진 대형화폭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 분들의 값진 희생 덕에 현재 우리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아무런 박해가 없는데도 그저 편한 것

로운 마음이 들었다.

그 때의 희생을 말없이 증거하고 있는 수많은 사진들과 유품들을 뒤로 하고서 찾아간 두 번째 코스 소래교회. 선교사의 도움없이 자주적인 모금을 통해 이 땅에 지어진 최초의 교회인 황해도 소래교회를 경기도의 총신대 캠퍼스안에 그대로 재건한 아담한 기와집에서 여는 예배를 드렸다. 비록 남녀 사이를 가르는 휘장도 없고 옷차림도 간편해졌지만 수만배 수백만배 결실 얻은 한 알의 밀알이 되었던 선조들의 다짐을 잊어선 안된다는 것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숙소인 태화국제학교에서는 나의 찬송!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조별로 연극을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같은 구역 식구들끼리 나란히 누워 두



런두런 나는 이야기들과 새롭게 알게 된 교구 식구들끼리의 교제는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온 우리들 각자가 믿음의 선조가 되어야 할 짐을 나눠지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윤유정 집사(5-7)



6+7교구

영적 하프타임

7/16-17 화성 하내수련원

수련회 당일날, 가는 비가 내렸지만 일상을 떠나 자연속에서 교우들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다는 설렘으로 부풀었다. 맛있는 저녁 후 전진희, 김영림 집사님의 열성적인 가르침으로 전체가 땀을 흘리며 즐거운 포크댄스 시간을 가졌고, 이어서 여호수와 8장 30-35절 말씀으로 "영적 하프타임"에 대하여 박의일 목사님의 뜨겁고 강력한 설교와 예배, 그리고 기도가 이어졌다. 목사님은 "전반부의 삶을 어떤 형태로 살았는지 하프타임을 통하여 점검하고 재충전하여 새로운 계획을 세워 후반부의 삶을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영적 삶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셨다.

늦은 시간까지 서로 알지 못하던 교우들과

일상의 대화와 신앙에 대한 간증을 서로 나누며 또 다른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은 참으로 유익했다. 이른 아침 정성스럽게 가꾸어 놓은 축축히 젖은 자연 속에서 전도서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말씀이 떠올라 더욱 감격스러웠다. 이호 목사님의 폐회예배로 끝맺은 2007년 수련회는 우리를 위해 준비된 맛있는 식사와 간식과 가족을 위한 옥수수 보따리까지, 교우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집사님들 덕분에 더욱 즐거웠다. 가는 비속에서 족구를 하시는 집사님들, 수영장에서 나와 별벌 떠는 아이들을 챙기는 예쁜 젊은 집사님들, 일 년에 한번 하는 수련회는 다양하고 즐거운 삶들을 볼 수 있어 새롭고 즐겁다. 3년 내리 비와 함께하는 수



련회, 내년에는 맑은 날이어서 아이들이 신나게 노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본다.

김고미 집사(6-5)



알려드립니다

청년부 국내선교팀

지난 주 일
(22일) 청년
부 국내선



교팀은 강원도로 선교여행을 떠나기전 그동안 배운 발마사지로 교우들에게 봉사했다. 독거 노인들을 위해 김치를 만들고 마을 잔치를 위한 식사준비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교우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했다.

주님의교회 단기선교팀



해외단기선교팀은 7월 31일부터 8월7일까지 우즈베키스탄 단기 여행을 간다. 그 곳에서 장애인 어린이들을 위한 사생대회를 함께 진행 할 예정이다. 준비모임 중에는 아프가니스탄 선교 여행 중 억류된 교우들 조기 석방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양육클래스 수료식



지난 7월 11일 수요일에 2007-1 양육클래스 수료식이 있었다. 지난 3월 부터 시작해서 7월 초까지 진행된 이번 양육과정은 총 450여명이 참여했다.

정영환목사 사임



1교구를 맡았던 정영환 목사가 지난 주 일(7월 22일)로 사임했다. 정목사는 2004년 1월 부임해 교구와 함께 예배부, 중보기도사역팀 등을 담당해 왔다. 정목사는 8월 초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유학생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교구수련회 사진전시회

교구수련회 사진전시회가 1층 양쪽 복도에서 진행중입니다. 원하는 사진은 교구별로 신청해 주십시오.



틀리다 [wrong]란 뜻이에요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겹쳐 눈 밑에서 튀기면
틀리다 란 뜻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곳은, 펜실베이니아의 작은 산골 랭캐스타입니다. 이곳은 문명의 이기를 거부한 아미시(Amish)들이 사는 곳으로,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미시들이 전기조차 거부하고 달구지를 끌고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는 것도 특별한 구경거리입니다. 또한 이곳은 많은 목회자들이 찾는 성막의 모형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미국 전체에서 가장 큰 기독교 뮤지컬 극장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도 오늘 저녁에는 "태초에(In the beginning)"이라는 뮤지컬을 보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놀라운 사건을 경이로움으로 경험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이사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지내다가, 두 주 전에 집을 보내고 나서야 이제 한 숨을 돌리며 인사할 사람들을 찾아서 아내와 함께 차로 이곳 저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뉴욕을 가장 먼저 찾았고, 처음 유학했던 프린스턴, 친구가 목회하는 필라델피아를 거쳐서 마지막 학위를 받았던 유니언/PSCE 신학교를 방문하고, 디트로이트로 돌아가는 길에 지금은 랭캐스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이곳을 떠나 저녁에는 디트로이트 교회의 구역 송별 모임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아들을 찾아가던 뉴욕에서는 친구와 함께 동사무회를 했던 뉴욕의 '아름다운 교회'를 방문해 설교했습니다. 교회를 떠난 뒤 4년 반 만에 찾은 곳이라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작은 걱정을 무색케 할 만큼 성도님들이 큰 기쁨으로 맞아주었습니다. 벌써 대부분의 교인들이 제가 주님의교회로 부임했다는 소식을 다 알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며칠 뒤 워싱턴에 도착하자 몇몇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밤이 늦도록 신학교 때의 일과 그동안 목회 현장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들을 은혜롭게 나누었고, 한 친구가 막 목회지를 떠나 새로운 임지를 찾고 있었기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주님의교회에 대해서는 이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학위를 받았던 리치몬드에서는 학장님을 잠시 뵈고선 예전에 학생으로 가르쳤던 목사님들과 함께 점심을 나누면서 다시 교수의 심정으로 돌아가 이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물론 예전에 잘못 가르쳐서 미안하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디트로이트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L.A.를 거쳐서 8월 15일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곳 저곳을 다니는 동안 지난날들을 함께하신 주님의 손길을 되새기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수직을 그만두고 목회 현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가졌던 두려움과 헌신도 생각이 났고, 목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소중한 어려움들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새벽기도 훈련받는다고 10분 간격으로 알람시계를 세 개씩이나 울리도록 한 일, 낮선 뉴욕에서 한 밤중에 심방 갔다가 길을 잘못 들어 혼비백산하면서 도망쳤던 일, 아이들이 적응하는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손잡고 안타깝게 기도했던 일...아울러 목회의 현장으로 나오면서 드렸던 첫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빠짐없

이 응답되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목사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에 열심을 더해주시십시오!
말씀에 능력을 더해주시십시오!
하나님의 소망이 저의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겸손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의 부족한 면들이 하나 둘 채워지고 다듬어졌던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들이 진정으로 소중한게 다가왔습니다.

디트로이트 교회에 잠시 들렀을 때 건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의 눈물로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혼자서 교회 옆에 있는 숲에 들어가 길을 만들고 숲을 가꾸었던 그 자리에 이제는 훌륭한 체육관이 완성되어 가고, 오랫동안 바랐던 영아실이 확충되고, 교육관 통로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교회 벽보에 아직도 매주일 오전에 했던 성경 공부 광고지가 붙어있는 것을 보면서 지난 4년 여 동안 온 교우들과 함께 이루었던 12단계 성경 공부 가 제 마음에 성큼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사임한다는 말을 듣고서 처음에는 실망과 안타까움으로 심지어 분노까지 가지셨던 분들도 이제는 마음이 정리되면서 "축하합니다!"라고 축복해주시고 앞 다투어 식사를 하자는 성화(?)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교회 성도여러분!

지난 6월 둘째 주부터 7월 첫 주까지 보여주신 아름다운 사랑을 마음 깊이 담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래 기다렸습니다!"라는 말씀이 제게 큰 감동으로 남아있습니다. 작은 일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주신 여러분들의 손길, 무엇보다 저를 반갑게 맞아주신 여러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심은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감히 떠올리면서 저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혜에 응답하려고 다짐합니다. 이제 남은 기간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의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과 소망을 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기대와 능력도 기쁨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인 피랍사건을 전해 들으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일들이 순조로이 해결되어지기를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산골 랭캐스타에서,
목사 박원호 드림

Proff



나/의/신/앙/이/야/기

최미옥 집사(5-18)

하나님!
당신의 뜻 가운데
주님의교회를 섬긴 지
5년이 되어 갑니다.

세월은 한 해 두 해
늘어 가지만,
당신의 말씀으로 이 교회가
날마다
싱싱하게 피어나는
젊은 영혼들로 가득 차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을 오랫동안 알고 있으면서
내 마음은
늘 강박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은
나를,
주님의교회로 인도하고
내 마음은 어느덧
푸근한 안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말씀으로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교회,
서로를 쳐다보며 새 사람을 체험하는 교회.
나는 이제야 숨을 쉴 것 같았습니다.
영혼의 숨을 쉴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기꺼이 저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어울려 믿음을 지키는 연약함보다는
깊고 외로운 동굴 속에서도
홀로,
믿음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소서!

Misson 함줄함줄, 표준어사용 시리즈

“우리가 표준말의 희망입니다.”

'니'의 발음

표준발음법에는 '의'를 발음하는 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5항. 'ㄱ ㅋ ㆁ'과 'ㄷ ㅌ ㄴ'이 'ㄹ'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 다

만 낱말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ㄷ]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의사, 의미처럼 '의'가 앞에 올 때는 있는 그대로 [의]로 발음하고, 회의, 강의처럼 '의'가 뒤에 올 때는 [ㅣ]로 발음해도 되고, 너의, 나의, 그것의처럼 '의'가 조사로 쓰일 때는 [ㄷ]로 발음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는 [의사]로 이중모음으로 발음해야 하고, [으사]라고 발음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회의'는 [화:의]라고 발음해도 되고, [궤:이]라고 발음해도 됩니다. '강의'도 [강:의]라고 발음해도 되고, [강:이]라고 발음해도 됩니다. '우리의'도 [우리:의]라고 발음해도 되고, [우리:에]라고 발음해도 됩니다.

이정애기자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유아부 성경학교

“깨끗이 깨끗이”

이번 유아부 성경학교는 “깨끗이 깨끗이”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fun'으로 대표되는 현대 문화코드는 '죄'에 대하여 둔감하게 하고 '회개'에 대한 의미를 희석시킨다. 그러므로 우리 어린나무들에게 '죄와 회개'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 신앙경험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유아부 성경학교에서는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센터학습 네 개가 진행되었다. 또한, 7월 3주(주일)동안 3회에 걸쳐 '죄와 회개'에 대한 성경공부와 만들기 작업을 했다. 물놀이 시간에는 날씨가 흐려



서 아이들이 맘껏 수영하지 못했지만, 낚시·비눗방울·풍선 등을 가지고 즐겁게 놀았다. 아이들의 밝은 미소가 선생님들의 수고를 눈 녹듯 녹아버리게 했다.

전은숙 전도사

초등부 수련회

“아버지의 소망, 아들의 소망”

초등부 수련회(7월 23-25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무사히 마쳤다. “구원열차(눅 15:20)”라는 주제로 양평농원에서 열린 이번 캠프는 82명의 초등부 친구들과 22명의 초등부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잔치를 사모하며 참여했다.

첫째 날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메빅예배*, 구원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었던 신 천로역정, 미션 수행의 모듬성경공부, 찬양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품으로 달려가는 시간을 누렸다. 둘째 날은 ‘아버지의 소망’이란 주제로 물놀이 레크레이션, 회개의 증거에 대해 알아보는 모듬성경공부, 찬양집회, 죄를 박은 십자가를 태웠던 캠프과 이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망인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과 자연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나누었다. 셋째 날은 ‘아들의 소망’이란 주제로 미션 골든벨과 메빅예배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의 소망이 아들의 소망이 되어 변화된 한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불씨가 될 것을 다짐했다. 장마와 폭염의 중간에 놓였던 수련회는 하



나님의 놀라운 간섭 속에 매 순간마다 적절한 일기로 기막히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였다.

이번 여름캠프는 성도들의 두 손 든 기도와,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시간을 즐거움으로 참여한 열정으로 이루어졌다.

최 락 전도사

*메빅예배는 어린이 예배의 한 형태로 Memory (성구암송), Bible (말씀-메시지), Game (게임)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소년부 수련회

“또 다시 주안에서 하나!”



원지 모르게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수련회 장소인 소백산으로 출발했다. 도착 후 강당에 고인 물을 보면서 난감했고, 비가 오면서 기온이 떨어져 예정된 물놀

이 프로그램을 변경 하는 등 시작부터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다. 하지만 걱정했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물이 고여 있던 강당이 점점 포근하고 아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찬양과 집회를 하면서 수련회의 열기가 무르익었다. 회사일 마치고 밤늦게 수련회 장소로 달려온 선생님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시 주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확인했다.

둘째 날 저녁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은 1:1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다. 기쁨으로 예배를 마친 어린이들이 불나방같이 밤늦게까지 뛰놀았다. 마지막 날 자장면을 잘 먹고 배가 아프다던 아이들은 강정녀선생님이 일일이 손을 따주자 거짓말처럼 다 나았다. 이렇게 수련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윤성진 집사(7-17)